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호 [루게 제25160호] 주재105(2016)년 1월 17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 찬란근민이 주체조선의 첫 수호탄시합에서 완전성공한 그 기쁨, 그 본래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력사의 날을 맞으며 전세 청년전위들은 한평생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열풍,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당의 후비대,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담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들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기념 보고대회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새로운 주체100년대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총공격이 되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로 든든히 꾸러자!》,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든든히 준비하자!》, 《청년들이여,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최룡해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건 내각 부총리,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청년동맹 일군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과 근로단체, 성, 중앙 기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일

군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이어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다》를 하였다.

보고자는 청년동맹창립 70돐을 맞으며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솟구치는 그리움을 담아 청년동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어서 백두산청년대

강국의 승리의 기치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렸다.

그는 세상에는 수많은 청년조직들이 있지만 우리의 청년동맹처럼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전두에 높이 모시고 장장 70성장 로속하고 세련된 당의 명도따라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웅적위훈을 새겨온 존엄높고 위대한 청년조직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걸은 성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500만 청년들은 가장 위대하고 로속한 조선로동당의 명도가 있는 한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의 앞길은 끝없이 장창하며 청년강국의 위용은 세세년년 더 높이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철리를 더욱 굳게 새겨안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청년전위들이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벽찬시대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명도들 맨 앞장에서 발돋움하여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기념 중앙보고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청년전위들의 역센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도이힐란드 베를린 아차 위메디아프린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출판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명도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선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신다.

그이의 명도함에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에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전베없이 로물화되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수없이 달성하

였다.

특히 지난해 조선의 건설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세인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멀지 않아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일떠설 조선의 패임을 그려보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출판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알레리 알파자이르 프랑스 나디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출판사 사장은 발행식에서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를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로씨야 나호드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로씨야 나호드카 포르마트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자주적신념과 배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세계 진보적인사들이 우리의 첫 수호탄시합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수많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어오셨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한결같이 자주의 신념과 강인대담한 배짱으로 민족의 대장거를 이룩하시며 최강국의 존엄과 국력을 민방에 떨치시는 백두령장의 천출위인상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도이힐란드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첫 수호탄시합에서 완전성공한데 대하여 김정은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린다.

세계주의세력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대처한 조선의 자위적조직에 전적인 지지와 편대성을 보인다.

조선인민은 핵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장을 가지게 되었다.

핵억제력을 갖추는 김반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

처해나가는 유일하고 명백한 길이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쉬 우랄라포바는 조선의 수호탄시합의 성공은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자주의 신념과 배짱,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해가시는 김정은동지는 진정한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발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파나스 이와노프는 수호탄시합을 성공시키는데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인사를 드린다. 조선의 승리는 자기 힘이 강해야만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위의 힘을 지닌 강대한 조선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련맹베리코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벨라루스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웨. 베. 켈리코프는 이렇게 강

조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명도함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착한 봉쇄속에서도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 높이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이 수호탄시합에서 성공함으로써 조선은 수호탄까지 가진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수호탄은 미제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공화국의 수호탄시합성공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하면서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력갱생의 산물인 수호탄시합의 완전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과학기술적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수호탄시합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은 파란을 면

지 못할것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피페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수호탄시합 완전성공은 김정은동지께서 펼쳐시는 선군정치에 위대하고 빛나는 승리이다.

이 력사적인 시련은 온 세계에 사회주의조선의 불멸의 국력과 위상을 과시하였다.

조선이 정의의 수호탄을 보유할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적인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선택이었다.

수호탄시합을 통하여 조선은 오직 강자만이 승당이부러로부터 자기를 지켜낼수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실증해주었다.

일심단결에 기초한 핵무력의 강화는 공화국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장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선군정치에 위대한 승리 만세!

【조선중앙통신】

축 하 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온 나라 천만근민이 첫 수조산사업에서 완전성공한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주체혁명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대희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일흔년을 맞는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70년역사는 천리해안의 빛나는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적청년운동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이며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여세게 키워온 혁명적청년조직의 자랑스러운 투쟁사이다.

일찍이 청년사업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월 17일 조선청년들의 대중적이며 유일한 조직인 청년동맹을 창립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혁명행도의 전기간 일관하게 청년사망의 정치를 펼치시어 우리 나라에서 청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청년동맹의 기본사명으로, 조선청년운동의 총적목표로 정식화하시고 동맹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으며 청년동맹에 태양의 거룩한 존함을 모시도록 하여주시고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전투력과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독창적인 청년중시정치로 천하무적의 청년

대군을 키워내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불세출의 위인들의 위대한 헌신과 성스러운 혁명령도가 있어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끝마르 전진하여 오수 있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청년사업발전의 강병적 대강들을 밝혀주고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명도하고있는 당중앙은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었으며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정으로 온 나라 청년들을 보살피며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주인공들로, 선군혁명의 역센 기동감들로 키워주어 보다 큰 위훈장조로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창립후 지난 70년간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헌명한 령도밑에 이 세상 가장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위력 떨치며 주체의 한길을 따라 끝마르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정명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였으며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였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역사적시기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은 우리 당과 운동의 피줄을 잇고 죽어도 변치 않는 혁명신념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실천투쟁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창조된 청년

들격진, 청년문화와 온 나라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들,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에 의하여 일떠서고있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자라난 미더운 청년전위들의 기상과 우리 당의 청년중시정치의 불멸의 생활력을 옹번으로 실증하여주었고있다.

우리의 미더운 청년과학자들과 청년들은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앞장에서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우주기술,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요소를 점령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청년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조직생활의 용광로로 제1세대 청년투사들이 창조한 혁명정신과 강인담대한 투쟁기풍을 여세게 이어나가는 청년대군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은 필승불패하며 조국과 혁명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장창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이 당의 청년중시 사상과 정치를 피뎌는 심장으로 받들고 주체혁명의 년대기들을 총정와 위훈으로 빛내이며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최후대, 이속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역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사적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것은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의 총적인 투쟁목표이며 이 중대하고 책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은 청년들의 역할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며 당을 따라 혁명의 천리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참된 청년조직으로, 견결한 청년전위로 든든히 준비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년사업부문에 주신 역사적인 유훈들과 당이 밝혀준 청년운동대강들을 불멸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여 동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5대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앞에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당 제7차대회와 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해로, 청년강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파시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포마라 폭풍중 내달리자!》는 믿음

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거나가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시대의 청년전위에게 하나 밖에 없는 청춘시절을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총대중시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우리시대 청년들의 가장 숭고한 임무라는 자각을 지니고 반제반미대결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에서 청년들격정신을 남김없이 방양하여 영웅청년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청년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첨단과학기술의 요소를 점령하고 공장과 농장들에서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며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선군시대의 청년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정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청년들을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을 백수까지 새긴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조직사상생활지도를 짜고들며 열렬한 동지애와 이신작의 모범으로 청년들의 굳건하고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따라 이어주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는 유능한 청년혁명학교의 교원, 야전형의 청년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직들과 일군들, 청년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천길만길의 성세를 역척같이 쌓고 존엄높은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5(2016)년 1월 16일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동감들로 더욱 여세게 준비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 속도전청년들격대원들 - 주제 사상합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그날의 해불봉 영원히 안고 살리

나는 지금도 청춘시절의 못 잊을 추억들을 때없이 더듬곤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성스러운 그 이름과 더불어 이 나라 청년들이 그 얼마나 보람찬 성장의 길을 걸어왔는가.

해마다 우리 청년들은 이날을 맞는다. 하지만 청년동맹의 70년역사를 돌이켜보게 하는 이례의 1월 17일이 나에게 주는 추억은 감으로 뜨겁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에게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명칭과 친히 안겨주시는 혁명의 해불봉 그리고 뜻깊게 제정된 청년절과 청년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도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사료취위부장(당시)에도 사임하던 나는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꿈만 같다.

잊지 못한 주체 84(1995)년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50년을 경축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아뢰와 장엄한 해불봉행진이 진행되었다.

야회가 끝나고 해불봉행진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였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온 광장을 진감시키는 가운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누리려 밝히며 활활 타오르는 해불봉을 친히 당시 온천군 금당협동농장 농장원이었던 리예성동무와 저에게 안겨주시었다.

혁명의 해불봉을 여세게 틀어쥔 우리는 그이께 800만 청소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맨 앞장에 결사옹위하는 총력전으로 더욱 여세게 준비하겠다는 총성의 맹세를 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어 크나큰 믿음과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밤에 펼쳐진 화폭은 령도자와 혁명의 계승자들사이의 뜨거운 사랑과 충정을 파시한 숭엄한 화폭이었다.

해불봉행진대의 앞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혁명의 해불봉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다. 이렇게 시작된 10만명 해불봉행진대가 신념의 글발을 해불로 새기며 모두 당당히 광장을 누비나갔다.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일심단결의 대가로 굽어쳐보시는 해불봉행진대를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학생들의 해불봉이 적색하고 힘이 있다고, 해불봉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는 조선청년학생들의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주고있다고...

우리 청년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혁명의 해불이 되라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담아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혁명의 해불봉.

그날에 펼쳐졌던 감격의 화폭을 수십년세월이 흘렀다고 어이 잊을수 있었는가.

령도자와 청년들간에 오고간

그 뜨거운 정은 이 세상 가장 고상한 감정이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분들을 수령으로, 령도자로 모시고 혁명해왔던가를 절감한 우리 청년들이다.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나는 오늘 교육위원회 의 한계 국을 책임진 일군으로 사임하고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인고계를 넘 넘어섰어도 나는 청춘시절 내가 받아안았던 무한한 영광,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혁명의 해불봉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그 시칠처럼 삼켜 일 해나갈 결심이다.

사람의 한생애 두번다시 오지 않을 귀중한 청춘시절에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나는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백두의 띠를 안고 영원히 타오르는 혁명의 해불봉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대한 김정은은 시대 청년들의 영웅선화를 창조해나가자고.

교육위원회 국장 윤희섭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여세게 키워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길만길으로 통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여세게 자라났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혁명의 려명기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파열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가지를 위해 만들어놓은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목이었고 체험이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합세하려고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생활경로가 각이한 천대만상의 청년들을 넓은 도량으로 한봉에 안아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망라될수 있는 조직을 내오시기 위하여 무수한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청년문제가 가장 완벽하게 해결된 나라는 없다.

세상에 자랑날은 우리의 청년운동사는 절세의 위인들께서 이 땅의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여세게 키워시던 나날에 있었던 일감깊은 이야기들을 전하여주었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몰가까이에서 비움은 영광을 지니게 청년대표들의 가슴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격정으로 설레어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청년대표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훌륭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열의로 들끓고있던 주체 37(1948)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청(당시) 제3차대회에 참가한 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몰가까이에서 비움은 영광을 지니게 청년대표들의 가슴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격정으로 설레어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한 청년대표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훌륭

최대 한으로 내세우고 최대 한으로 사랑하라!

엔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과 담화하실 때의 일이다.

일군은 문득 《장군님께서 지니신 청년관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던 좋겠습니다.》라고 무뎠없이 정을 드렸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

어버이의 한평생이다.

하오, 정말 많은 일을 했소라고 하시며 그들을 높이 치하 해주시었다.

동무들은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조국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야 한다고, 나라가 강대하려면 미래의 주인공들이 강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미래의 조선의 주인공들, 어버이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청년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새 조국건설에 한몸바쳐나갈 불같은 열기가 충만되어있었다.

들에 대한 견해와 관점뿐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는 청년들격대원들에게 만두를 푸듯 하게 맛보이자고 하시며 그 준비로부터 식사조작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결정된다. 따라서 청년문제는 오늘의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는 당면한 문제로만이 아니라 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만민대계의 문제로 보고 전방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

그러시면서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억만재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최대한으로 내세우고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청년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태도와 림장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한낱한시에 받아안은 은정

10여만명의 청년들이 한낱한시에 특식상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펼쳐진 현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영웅도로건설이 한창이던 날 기회를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는 청년들격대원들에게 만두를 푸듯 하게 맛보이자고 하시며 그 준비로부터 식사조작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하어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였고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위훈과 기적을 날게 한 원동력이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일떠선 청춘대기법비

지난해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북방의 후한을 이겨내며 발전소건설에 청춘시절을 바쳐가는 청년들격대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었다.

그날 발전소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년들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것을 힘있게 파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로서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심정이라고, 그들과 함께 밤을 흘리며 대자연과의 싸움을 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장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청년들격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청년강국,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서는 그 부름은 백두청춘들의 가슴마다에 용맹의 내뿜을 달아주었고 온 나라 청춘들의 심장은 용암처럼 달구어주었다.

온 나라 청년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백두산으로 향하였고 발전소건설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해불결의 하루하루가 흘렀다. 청년들격대원들은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동안에 해제끼고 1호발전소엔제를 완공하는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하였다.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로 우뚝 솟아 빛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정령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낳은 청년강국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본사기자 채희성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총진군대오의 전열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래양기 휘날리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내 조국의 하늘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이 펄펄 휘날린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부르짖어 부를수록 한없는 긍지로 부르고 뫼음으로 약동하는 강성조선의 기상이 한껏 차려진다. 얼마나 긍지높고 성스러운 부름인가.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우한거리로 전락되어 력사의 기둥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시각이 땅우에는 위대한 태양의 촉촉이 그 이쁨도 빛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일흔년의 날이 자랑스럽게, 땀땀하게 새겨지고있다.

력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를 둘러 보라.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의 청년들처럼 장장 70년세월 자기 수명, 자기 영도자를 따라 충성의 한길만을 끝까지 달려온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70년! 짧지 않은 이 세월은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성을 파시한 성스러운 력사이며 우리 청년들이 고귀한 피와 땀으로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념비를 일떠세운 기적창조의 날이었다.

우리 조국은 바로 이런 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일떠서고 끝없이 강성번영하는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이다.

정녕 이 땅우에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무적 필승의 군사강국과 함께 주체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이야말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이다.

하기에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되어 세계를 굽어보는 강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오늘의 이 행복의 절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강애하는 원수님께 다짐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의연 기풍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선격대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만들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위용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우리 청년들의 어깨에 놓여있다.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을 안고 총진군대에 용약 떨쳐나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이제 또 그려졌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성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철신평행하는것이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배수경신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고있다.

특히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

명령을 받들어 청년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드세게 벌여나가고있다.

동맹원들의 믿음없는 작전과 조직사업,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청년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모든 초급단체들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위력적인 공청조직처럼 쇄소리는 전위대로 강화되고있다.

당정책위원회의 결사대인 청년전위대오가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힘차게 나아가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오늘 비상히 양양된 청년들의 전투적인 사기로 하여 온 나라 장군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우리의 미더운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여, 조국과 인민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시라!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이여, 백두의 선군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태양이 휘날리며 영원히 끝날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앞으로!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청년들은 백두같은 충정과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백두대지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비상한 창조정신과 불굴의 의지, 불같은 열정을 안고 백두산악같이 일떠선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 그들의 가슴에 강겨진 꿈에는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청년들은 백두정전에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역세게 키우기 위하여 발전소건설을 통해 모닥재로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대고조전투장마당에서 청년돌격대의 기발이 힘차게 나뭇가지에 걸린다.

혁명관망 차광수청년돌격대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력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

혁명관망 차광수청년돌격대 대장 김철철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늘 가슴에 품고있는 지론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용감 떨쳐나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움으로써 인생에 한바탕에 없는 귀중한 창조시절을 한결같이 후회도 없이 빛내어나가야 하겠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화를 전동맹에 철저히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준비상태는 대단히 좋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최상의 믿음으로, 사방으로 깊이 간직할 백두산영웅청년들 각대원들은 북방의 강우위를 이겨내며 파란만장한 공적에서 승리하는 전위대로 강화되고있다.

당정책위원회의 결사대인 청년전위대오가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힘차게 나아가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오늘 비상히 양양된 청년들의 전투적인 사기로 하여 온 나라 장군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우리의 미더운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여, 조국과 인민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시라!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이여, 백두의 선군명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두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태양이 휘날리며 영원히 끝날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앞으로!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청년들은 백두같은 충정과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백두대지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비상한 창조정신과 불굴의 의지, 불같은 열정을 안고 백두산악같이 일떠선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 그들의 가슴에 강겨진 꿈에는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청년들은 백두정전에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역세게 키우기 위하여 발전소건설을 통해 모닥재로

말고 당이 정한 침로따라 폭풍처럼 내달려 영웅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백두산영웅청년들 각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을 받들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대에서 전격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청년들은 백두같은 충정과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백두대지에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비상한 창조정신과 불굴의 의지, 불같은 열정을 안고 백두산악같이 일떠선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 그들의 가슴에 강겨진 꿈에는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청년들은 백두정전에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역세게 키우기 위하여 발전소건설을 통해 모닥재로

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기업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어찌 그럴만이라. 백두산의 메아리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심장을 광풍 두드린다.

김철과 황철의 용해공청년들의 가슴에도, 순천과 덕천의 탄전들에서 지켜선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에도, 순천과 연백의 청년분조원들의 가슴에도 아니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가슴속에 백두산이 자리잡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럼 내달려라!》라는 투쟁의 구호가 온 나라 청년들의 심장의 박동으로 되고 모든 전투장이 백두정장으로 된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 것인가.

이것은 백두의 형용을 뜻없이 이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는 벽산 투쟁의 앞장에서 청년동맹기발을 세차게 휘날리며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선군조선청년들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신념과 의지의 일대 파사로 된다.

그렇다. 백두산에 뿌리를 둔 청년대강국의 주인공들이여 우리의 자랑은 조선청년들은 영원히 백두산에 있다.

허 일 무

청년돌격대활동은 청춘대학과정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의연 기풍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선격대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감람을 피내어 운반해보본선을 복수하면서 굴진도 동시에 내밀었다.》

《착입을 돌리지 못하면 합마와 정대로 수를 해사라도 오늘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시다.》

이것이 어찌 혁명관망의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만 발휘된 투쟁기풍이라고 할까.

이 땅의 수많은 청년돌격대들이 바로 이렇게 투쟁하고있다.

이런 벽산 투쟁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영웅적위용의 창조자로 역세게 자라고있는것이다.

그렇다. 청년돌격대운동이야말로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으로 키워내는 청년대학과정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청년돌격정신은 사회주의협동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며 어머니 우리 땅을 팔로써 건설을 위한 청년전위들의 불같은 각오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세대로 1심함으로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주제 68(1977)년 8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존엄을 집단지출한 신인주자고중등학교(당시) 졸업생들의 기쁜 소식을 보고받으시고 높이 평가하시며 감사를 보내주시던 인주시사서협동농장의 청년분조원들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정보당 40의 정풍은 유기질비료를 실어내는것, 이것은 뜻깊은 올해의 압곡성실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해 이곳 청년분조원들스스로가 내세운 새해 첫 전투목표였다. 힘차고 많은 과제이다. 하지만 당의 전투적소신을 심장마다에 쏘아박고 신안같이 떨쳐나 위용의 낮과 밤을 이어나간 이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년 기념까지 정보당 20억의 생물활성제비와 나한은반을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날 지역이 낮은 조건에도 정보당 수입의 유기질비료를 운반하고있을 때 생화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의 하루 나한에 정 보만실적은 지난해의 2.2배에 달하였다.

그들이 아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은 하루최고 150여의 유기질비료를 운반과 각종 모판자재준비를 다그쳐나갔다. 순천군 칠리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은 지난해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한 기세도높이 정보당 30여의 유기질비료를 운반 전투를 경쟁적으로 벌려나갔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판행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70년의 청년영웅서사를 더듬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용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력사의 갈래를 뚫어본다. 혁명의 년대들에 뚜렷이 새겨진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위훈의 자욱을 더듬어본다.

위대한 당을 만드는 길에서 이 땅의 청춘들이 피와 땀으로 엮어온 70년의 영웅서사를 감회깊이 되새겨본다.

75일간의 기적

주제 47(1958)년 8월 12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리었다.

《해주-하성간 광철도우로 우리는 오늘 《청년철차》를 떠나 보낸다. 일제때같은 5년은

시에 전진설장을 휩쓸었다. 이것은 작업능률을 전반적으로 실로 270%이상으로 높이고 하였다.》

《2m수중에서 29시간이나 모래가마니를 쌓아서 마명원용벽공사를 보장한 리수복영웅들 각대원들, 칠탄산을 들어낸 젊은이들...이런 용감스러운 청년들이라면 이야기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단군에서 온 농촌청년 조동주동무는 500삼 뜨고야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하여 하루에 25m의 성토를 한 일까지 있었다. ...

해주-하성간 광철도건설장에서는 파장같이 이런것은 보

움으로 변했고 화로앞에서 달군 물도 몇번 지나면 턱이 딱딱해 쪼이였다. 양지쪽에서 모자를 쓰고있어도 키바리가 아려나는 판에 하물며 강바람사나를 목속에서야!

그렇지만 전투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청년건설자들은 북방의 강우가 살을 에이는 그속에서도 앞을 닦아내 강양속에 들어갔고 모래속에 머리는 순간에는 얼음물속에서도 숨지 않고 뛰어들어 한몸으로 막아나섰다. ...

만민대제의 거창한 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준 당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을 안고 청년건설자들은 막달나무

담을 수 있다. 마대를 지저! 대대와 려단의 후방참모들에서 쌀마대를 몽땅 훑아내, 물마대가 되어 작업장에 나왔다. 나중에는 입고있던 작업복까지 마대)가 되었다. ...

...흙과 물을 팡팡 다져넣은 마대의 무게는 보통 30~40kg, 그 무거운 마대를 메고도 청년들은 걷는것이 성지처럼 앓아 뛰고 달랐다.

하루종일 달린 거리를 계산하면 왕복 80~90리, 최고 105리! ...

평양시 청춘건설사단에서 113군대를 기운 마대가 청년들의 위훈의 대명사로 되었고 때 남포시청년건설사단에서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평남청년전선개발장으로 떠나는 청년들



청춘의 열정 나래치는 해주-하성사이 넓은철길건설전투장



단천-금골사이 철도전기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청년들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선원들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의 청년돌격대원들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제공리드림공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돌격대원들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제공리드림공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돌격대원들

본사기자 김순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의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문수지구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류경치과병원은 온 나라에 소문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가이다. 치과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고 집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으며 훌륭하게 일떠선 병원을 한번 보고싶어 우정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개원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몇 해밖에 안되지만 류경치과병원의 의료인들은 전례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환자들을 치료한 수만 높고보아도 무려 8만 5천여명을 헤아린다는 거대한 기록을 세웠다.

정문으로 들어서서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과 정이 뜨겁게 새겨진 《류경치과병원》이라는 사연깊은 글씨가 환하게 반겨준다.

맞춰진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툇박이 병원을 찾았을때 그날 치료받던 한 어린이를 기억해주며 무슨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고 단정히 물으시기도 하고 감사의 편지를 올리니 한 전령로 말하며 나에게 치료를 잘하라고 거들거늘 정답이 말하며 환하게 반겨주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당의 은정 뜨겁게 넘치는 류경치과병원

그날의 정깊은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싶었다. 병원일군들도, 치료를 받으러 왔던 인민들도 어린애마냥 그이 품에 안겨들던 못 잊을 그날의 감동적인 화폭이 눈에 선히 안겨드는 복도도 무심히 지날수가 없었다.

승인해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1부원장 리명철동무와 병원을 돌아보았다. 그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아래 우리 인민들이 값비싼 의료봉사도 무상으로 받고있는 데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를 접수파로 안내하였다. 이곳에서 환자는 치과외과에 따라 해당과로 옮겨진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치과질환들을 화면을 통해 제논으로 직접 보게 한 다음 거기에 달맞는 치과외과생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한 의료인들을 볼수 있었다.

《치과외과에서 중요한것은 이따기를 잘하는것인데 매일 3번, 식후 3분 이내에 3개 면 즉 불면, 혀면, 씹는 면을 3분 동안 닦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치과부분에 대한 관리로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헌신적인 다짐입니다.》

의사생활에서 소홀히 할수 있는 이따기방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의료인들의 친절성에 절로 끌려들듯 환자는 열심히 귀를 장구고 듣고있었다.

마치 치과외과에 대한 수업시간인듯싶은 이 파의 분위기를 깨고싶지 않아 문을 조용히 닫은 우리는 2층에 있는 덴트겐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덴트겐과로 들어서서 우리에게 동행한 일군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다목적용도의 덴트겐활영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병원에 참관했던 외국인들이 이 설비를 리용한 의료봉사를 평범한 근로자들이든 한탄 내지 않고 마음껏 받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현대적인 의료설비에 한하는 치과외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은 바다에도 비길수 없고 하늘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헌정임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다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원한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위대한 어머니사랑,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헌신적인 다짐입니다. 목소리인양 어느 치료실에선가 노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그 노래소리에 마음이 끌려 다가가기 《교정 치과》라고 쓴 칸판이 보였다.

치과실문을 열고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면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감상하고있었던것이였다.

놀라와하는 우리에게 교정 치과 과장 배재선동무는 병원에 찾아오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치료시간이 보통 한 시간정도 되게 긴것을 헤아리시어 치료실과 대기실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놓고도 뜨거우 온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세상에 이렇듯 훌륭한 인민의 치과병원이 어디에 있으랴,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는 그 훨씬 과연 어디일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후두워졌다.

치료실에 놓여진 컴퓨터는 의료인들에게 있어서도 해당과와 연계하며 즉시 환자에 대한 의뢰를 진행할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과장은 류경치과병원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병원으로 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고 병원의 전체 성원들이 기술기술훈을 높이기 위해 떨쳐나선데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근 이곳 병원의의료인들의 실력은 매우 높아지고있는데 그 덕이 바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있다는것이였다. 특히 이곳

파란 높고보아도 학위학석사유지대렬이 늘어났으며 지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치과치료에 적극 도입한 자랑을 자라고있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과학기술보급실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후론 하늘》이라는 상표를 단 컴퓨터를 이 놓여진 모습을 호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우리의 상표를 단 그 컴퓨터를 다루며 병원의의료인들은 무척을 생각할것인가. 의학정보기사를 리현우동무는 여기에는 치과부분에 필요한 수많은 자료기자들이 구축되어있으며 병원의 모든 의료인들에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 리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특히 병원의 많은 의료인들을 원전대학교유을 받았고있으며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지식의 탐을 부쩍 쌓아가고있다는것이였다. 병원이 지난해

보건성적으로 진행된 의료인군들의 실력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전국보건부문 의료기공신회에서 종합 1위를 쟁취한것 역시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서로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더욱 빛내기 위해 애쓰고있는 이곳 의료인군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겨울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후두워졌다.

정말 보는것마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거울처럼 맑게 비껴있고 인민을 하를처럼 여기는 우리 당의

고마운 은정이 뜨겁게 차고넘치는 병원이었다.

병원문을 나서니 어느덧 밤이 깊었다. 불빛없는 병원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어머니사랑이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따스하게 감당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에방사업에 온갖 정성을 바치는 의료인군들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글 본사기자 김옥별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처녀어머니〉수첩》과 더불어 알게 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정의감이 강하고 아름다운것을 열렬히 지향하는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긍정적행동들을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며 뒤떨어진 청년들을 교양게좌하는데 힘을 불어넣어줄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취재길에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승호군인의 청년들속에서 리용되고있는 《처녀어머니》

황해북도 안의 청년들

《수첩》에 대한 이야기였다. 군청년동맹일군 장광선동무와 만나 우리는 그에 대하여 자세히 알수 있었다.

제2차 전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이후 어느 한 피복공장의 청년들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일러를 찾아오시면 좋은 기쁨을 드릴수 있게 해준 일군 한기라더 더 찾아하려는 일념으로 하여 《그리움의 수첩》이 생겨났으며 이들의 소망이 군인의

의미를 안고 수많은 청년들이 미용의 주인공으로 자라났다. 그중에서 우리는 지난해 11월에 영애군인의 영원한 고향무가 되어온 최준희동무와 최수하 반 교원인 박향순동무와 지난해 10월부터 부근있는 한 학생을 데려다 키우고있는 림석교동무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다.

또한 황해북도의 청년동맹일군들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일로 훌륭히 빛내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총성의 울림기간에 도안의 청년들속에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이후에만도 수많은 청년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하고 영애군인의 영원한 고향무가 되었으며 1만 수천명의 청년들이 정예로병들과 영애군인들, 들바를 현실에서 수만명들 따듯이 보살펴주고 수만명의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뜨거우 지성을 바치는 등 고상하고 아름다운 소행들이 많이 발휘되었다.

이런 청년들이 이 땅위에 수천천명 무성하게 자라나고있기에 내 조국은 세계에 울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될것이고 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우리의 가슴을 격동시켜 줄수 있게 하였다. 최준희동무와 최수하동무는 이땅에서 내 나라의 미래를 맡아 담당하는 확신을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강철웅

원예사

원예사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잡지 《청년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에 의거하여 1958년 3월에 창간되었다.

잇을수 없는 《처녀어머니》의 모습



《어들의 손을 잡고 《처녀어머니》가 달린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있는 몽베이의 얼굴에도, 처녀처럼 꽃시절을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바치며 18살에 어머니가 된 외태머니 《처녀어머니》의 고운 얼굴에도 웃음이 활짝 차고넘었다. 모두가 그들모자를 응원한다. 지난해 가을철운동회날

《어들의 손을 잡고 《처녀어머니》가 달린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있는 몽베이의 얼굴에도, 처녀처럼 꽃시절을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바치며 18살에 어머니가 된 외태머니 《처녀어머니》의 고운 얼굴에도 웃음이 활짝 차고넘었다. 모두가 그들모자를 응원한다. 지난해 가을철운동회날

《어들의 손을 잡고 《처녀어머니》가 달린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있는 몽베이의 얼굴에도, 처녀처럼 꽃시절을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바치며 18살에 어머니가 된 외태머니 《처녀어머니》의 고운 얼굴에도 웃음이 활짝 차고넘었다. 모두가 그들모자를 응원한다. 지난해 가을철운동회날

《어들의 손을 잡고 《처녀어머니》가 달린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있는 몽베이의 얼굴에도, 처녀처럼 꽃시절을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바치며 18살에 어머니가 된 외태머니 《처녀어머니》의 고운 얼굴에도 웃음이 활짝 차고넘었다. 모두가 그들모자를 응원한다. 지난해 가을철운동회날

《어들의 손을 잡고 《처녀어머니》가 달린다. 《어머니, 빨리요, 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있는 몽베이의 얼굴에도, 처녀처럼 꽃시절을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바치며 18살에 어머니가 된 외태머니 《처녀어머니》의 고운 얼굴에도 웃음이 활짝 차고넘었다. 모두가 그들모자를 응원한다. 지난해 가을철운동회날

래일의 과학세계는 우리의것이다

국제적인 프로그램경연들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을 만나보고

목표물에 전도유망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정보과학소조를 새로 조직하는 불과 닮은것이다. 당시 지도교원인 임명철 정장평동무는 20대의 청년대학생자였다. 짧은 기간에 거기에 세계를 더디고요 아심도 민민하게 봉납한 아들들은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경연대회에 나섰다. 바로 이듬해 세계 3대 1부문에 속하는 《코드세프》경연에서 3번을 함으로써 2년내에 참가하여 거의 매년 1등을 한 전적을 가진 어느 나라의 프로그램전문가들한테는 한 주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주인공들은 당시 대학생들이었던 안승철, 김광환, 최장수, 차광성동무들과 리은성, 김정철, 조경민동무를 비롯한 수하부의 학생들이다. 수학, 문헌학, 리주력, 전진주, 김효성, 최광성동무들과 전자공학부 강충일동무의 지체가 합쳐져 봉납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며 불타는 열정과 피나는 노력으로 축복깊은 지식과 창조적실천능력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세계적인 정보기술인재들을 키워

결을 묻는다면 이들모두는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어머니당은 이들모두를 크나큰 영광과 행복의 정점에 올려 세워주었다.

정 광 평 동 무 는 판 목 및 는 로 교수들과 나란히 현대적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받아내고 만사들의 추복속에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지난해 5월 당에서는 정보과학소조원들모두를 제2차 전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에 불러주었다. 대회의 토론단계에 나선 리은성동무는 청년강국의 대학생들이 과학기술강국건설기상을 받들어나가는 최첨단과파전의 선구자, 패권지가 될것을 다짐하였다.

당에서는 조경민동무를 김일성청년대학생수상자로 내세워주었으며 정 광 평 동 무 와 정 보 과학 소 조 원 들 모두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였다.

그 사랑을 안고 이들은 그후 세 차례에 걸쳐 《코드세프》경연의 황금배를 새김수록 봉납한 아들이라는 긍지를 안고 세계를 안은듯 가슴이 넓어지고 심장이 커지는것만 같다고 조경민, 김효성동무들은 말하였다.

우리모두의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어머니당과 조국을 위하여, 봉납의 존엄을 위하여! 그 누가 언제라도 우성의 비

공인된 규모가 제일 크고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생들의 지능경기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나라들사이의 경연이 아니라 대학들사이의 교육수준을 겨루는 교수경연, 인제경연의 대결이라고 한다.

승리의 기쁨이든 이들이 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 아시아지역에선경연에 참가하여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대학들의 지도교원들과 대학생들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냈다는 그대로부터 리마루었다.

리은성동무는 제2차 전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 참가자와 함께 영평의 기념사진을 찍어주며 활영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실 때 배배도록 고고고로 감사의 인사도, 아끼고있는 리상과 품도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꿈과 리상이 이루어지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나뵙게 되면 봉납한 아들들의 마음을 담아 그 때에 꼭 말씀드릴것입니다.》

과학을 앞기 전에 당과 수령을 먼저 알고 충정과 애국으로 청년의 신장을 불태울 줄 아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을 따라 펴낸의 넓과 기상,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는 길에서 나라 청년들의 고단한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그날 세상에 들도 없는 우리의 청년강국은 또 얼마나 젊어지고 부강건영할것인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의 각별한 관심속에 발달되는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출판물처럼 청년들에게 소중하고 사상정신적양식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안겨주며 참된 생활의 길동무로 되고있는 문학의 세계는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잡지 《청년문학》을 비롯한 도서들을 즐겨읽고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기왕성하고 락적인 생활을 즐기는 청년들인 경우에도 노래와 춤은 헤어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나 노래는 우리의 길동무라고 스스로없이 말한다.

청년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피와 땀,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는 그들의 가슴속에 거대한 혁명열, 투쟁열의 불길은 지펴주어 위엄으로 떠밀어주는 천군만마가 되었다. 그들이 바로 기공예술선동대원들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에서 창조된 영웅적인 신화도 나팔소리, 북소리 드를 울리며 떨쳐내며 위용을 위해온데 때때로 기공예술선동대원들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기공예술선동대의 활동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몸소 공연도 보아주시고 그들을 한눈에 안으시고 웃음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지 않았던가.

지금도 우리 원수님께서 백두산기공의 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기공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은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전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송고한

뜻,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감을 심장에 새기고 손풍금소리, 북소리를 울리며 기공예술선동대원들은 청년들의 위훈이 창조되는 그 어디에나 있었다.

손풍금을 메고 북과 나팔을 들고 청년들대기발이 휘날리는 발전소건설장으로, 애국의 승결 뜨거우 대고전투장에도 달려가서 기공예술선동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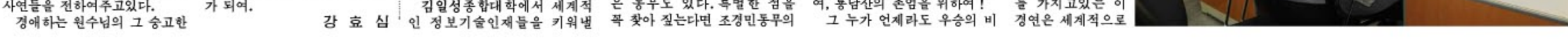
수많은 청년들의 위훈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혁신의 나래가 되어준 그들이었던것이다. 청년들의 가슴에 하얗은 꽃다발을 안겨준 그들이었던것이다. 자신들은 언제 한번 축하의 꽃 한송이 받아본적 있었는가.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수들의 무대인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기공예술선동대원들을 평양에 불러 뭉치는 공연무대에 세워주시고 청년들의 축하의 꽃다발을 한가득 받아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는 진정한 나라 청년들의 꽃다발이었고 조국이 안겨주는 애정은 표상이었다.

그 사연없는 꽃다발들을 받으며 기공예술선동대원들의 두볼로는 눈물이 하얗게 이물렀다. 그날의 크나큰 영광과 무한한 행복,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안고 오늘도 청년기공예술선동대원들은 수백수천의 당의 믿음직한 청년나팔수가 되어 보람찬 삶과 투쟁의 길을 즐기며 가고 있다. 청년들의 위훈의 길동무가 되어,

강효심

강효심



본사기자

